

정부 의료정책 불만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

■ 10일 14년만의 '의사파업'...광주·전남지역 반응

광주 의사사회 내일 회의서 향후대책 논의할 듯 병원·의사들간 의견 엇갈려 파업효과엔 의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과 낮은 수가에 불만을 표출해온 의사들이 결국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광주 의사사회는 의협의 파업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4일째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개표가 끝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파업 찬반투표가 76.69%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 재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집단 휴진 참여율을 나란하

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의사나 병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파업이 쉽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단휴진을 결정할 의협의 요구사항은 크게 ▲원격의료 반대 ▲의료 영리화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3가지로 집약된다.

의협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휴진 개시 시점으로 못 박은 3월 10일까지 최대한 파업 동력을 끌어 모으는 데 온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대형급 병원 경영자들의 협의체인 병협은 의료 영리화

대책과 관련해 개원의와 달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의료계도 병의원 규모나 매출액에 따라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입장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또는 병원과의 원들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공의와 일반 의사들 간에도 견해 차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파업 결정은 의료계 구성원들의 결집력이 약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당시와 같은 추동력 있고 폭발력 있는 집단 파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광주시의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파업의 효력은 의사들의 참여율에서 관가름나는 데 현재로서는 2000년과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단휴진이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는 입장 차를 보이면서도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중국인 추정 남·여 시신 신안 흥도 앞바다서 발견

신안 흥도 해상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여가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신원파악에 나섰다.

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40분께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쪽 89km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중 고무투박에 실려 떠다니는 남·여 번사체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사람이 물에 빠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닥에 그물망이 설치된 지름 1.3m의 고무투박 안에서 열십자 형태로 누워 있는 키 165cm·150cm의 남·여 시신이 발견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봄내음 가득 산수유

봄기운이 완연한 2일 화순군 이십곡리 너릿재 터널 입구 주변에 노란 산수유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고 따뜻한 봄볕을 만끽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11.4도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기온인 10도보다 1.4도 높은 수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점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65) 신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사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죄의 '위험한 물건' 및 손괴, 구경범죄처벌법의 '무단침입'에 관한 벌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신부는 2012년 3월 9일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강정 마을)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를 내리쳐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남뉴스

죽음 내몰린 특판품 판매업자

담양 죽제품 판매 50대 가게 월세도 못낼 만큼 경영악화 저가 중국산·플라스틱에 밀려 판로 급감...육성대책 절실

담양 특산품인 죽제품 전문 판매업자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목매 숨졌다.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전남의 특산물 육성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8시 30분께 담양읍 담양읍 A 죽

제품 판매점에서 김모(51)씨가 목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10년 넘게 죽제품을 만들며 신용과 신뢰를 쌓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5장 분량의 유서

가 발견됐다.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담양 지역에서 생산된 죽제품을 납품받아 165㎡ 규모의 가게에서 판매해왔으며 최근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0년대만 해도 20개가 넘었던 담양 죽제품 가공 공장의 경우 현재 3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 3곳도 중국산 저가 제품과 플라스틱 등에 밀리면서 운영·인력난을 겪고 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면서 마케팅 전략 등도 없는 데다, 지자체단체의 지원 의지도 소극적이다. 담양군 대나무자연연구소의 경우 지난해 14억5000만원이던 '고 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4억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전체 예산(58억원)이 지난해(46억원)보다 늘어난 반면, 판로 확보 등 대나무산업 마케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양에서 30년째 대나무 판매업을 해온 업자 유모(57)씨는 "죽부인, 대자리, 주방용품 등 판매 제품이 200여 가지도 넘지만 수요·판로 등을 찾기 어려울 힘들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0분 / 해질 18시 29분 / 달출 07시 53분 / 달몰 20시 46분

미세먼지 '보통'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광주	맑음	0/13℃
목포	맑음	0/13℃
여수	맑음	4/12℃
나주	맑음	-3/13℃
완도	맑음	1/13℃
구례	맑음	-2/14℃
강진	맑음	-1/14℃
해남	맑음	-2/14℃
장흥	맑음	-2/14℃
순천	맑음	1/14℃
영광	맑음	-1/12℃
진도	맑음	1/12℃
전주	맑음	-3/13℃
군산	맑음	-2/11℃
남원	맑음	-5/14℃
혁신도	맑음	4/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0.5~1.0m 관심 매우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1.0~2.0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목포 03:25 08:37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m 여수 10:35 04:09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0/12	4/7	-2/7	-1/9	1/10	1/11

조선대 2기 법인 이사회 출범한지 얼마나 됐다고 개방이사, 이사장 감투 욕심에 '시끌'

법적 소송 등 1년여의 진통 끝에 꾸려진 조선대 2기 이사회가 시작부터 이사장 자리 다툼으로 학내외 구성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사회 감시 및 견제와 지역 사회 의견을 대변해야 할 개방이사가 이사회 출범과 동시에 이사장 자리 욕심부터 내면서 조선대가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2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8일 2기 들어 첫 회의를 열고 이사장 선임은 논의했으나 이번 이사로 선임된 일부 개방이사가 이사장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파행을 빚었다.

회의에는 개방이사 3명과 정(일반)이사 5명으로 구성된 2기 이사회 8명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기 이사회를 이끌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었으며 강현욱 1기 이사장의 연임이 예상됐다.

그러나 일부 개방이사가 이사장에 개방이사 선임을 요구하면서 이사장 선임이 무산됐다. 2기 이사회가 출범과 동시에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개방이사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개방이사는 기존 이사회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은 적절치 못하는 게 주된 목소리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 출발 장가계직항

(3/28~5/23까지 적용)

(무안출발 16시10분)-(무안도착 14시 50분) / 금요일 출발 3박 4일 / 월요일 출발 4박 5일

[실속] 장가계 3박 4일 959,000 원~

[품격] 장가계 3박 4일 1,059,000 원~

[실속] 장가계 4박 5일 989,000 원~

[품격] 장가계 4박 5일 1,089,000 원~

제주 (OZ,KE) 호남지역출발 [3월~6월까지 적용]

선박패키지 149,000 원~

항공+선박패키지 190,000 원~

항공패키지 259,000 원~

특별상품 ♥ 유류세포함 [2014.3.1~6.30 적용]

[품격] 푸켓 5일 (전통안마,판아민싸카누,코끼리트레킹/3대특식포함) 749,000 원

[품격] 푸켓 6일 (전통안마,판아민싸카누,코끼리트레킹/3대특식포함) 949,000 원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3월출발- 949,000 원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4월출발- 929,000 원

♥히니문 기획상품♥ 경품증정 [2014.3.1~6.30 적용]

푸켓	(품격) 더비짓프라임폴빌라	1,630,000 원
	(고품격) 마이카오드림투베드폴빌라	1,840,000 원
프라비	(품격) 분가타니 폴빌라	1,650,000 원
	(고품격) 리초칼튼 폴빌라	1,840,000 원
세부	(정통) 크림스디럭스	1,310,000 원
	(품격) 임페리얼오션디럭스	1,340,000 원
	(고품격) 임페리얼오션원베드스윗	1,480,000 원

동남아 [선착순 특가 적용]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센레스토랑 포함 5일 499,000 원~

[푸켓] 피피섬+판아민+5대특식 5일/6일 499,000 원~

[싱가폴] 싱가포르/조호바루/바람 5일 699,000 원~

창사 20주년 상품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자유투어 ONLY

유럽 [선착순 특가 적용]

특급3박/피에르미에르/돌마바흐체 터키 9일 1,490,000 원~

고객만족위/고객 송출위 동유럽 6국 9일 1,490,000 원~

크로아티아일주+동유럽 5국 9일 1,990,000 원~

중국 [홍쇼핑 大 HIT상품]

북경 VIP리무진/라마다특급 4일 299,000 원~

메리이트호텔 3박+푸몹선 상해 4일 369,000 원~

성도/구채구/모니구(낙산대불) 5일/6일 429,000 원~

일본 [방학특선 & 홍쇼핑 HIT]

[홍쇼핑HIT] 선상크루즈 미야자키+벵부 5일 279,000 원~

[NO오피션] 북해도 핵심여행+대게요리 4일 599,000 원~

[NO오피션] 오사카/나라/교토 온천 3일 399,000 원~

남태평양/미주 [특가로 즐기는 성수기]

호주 시드니 특급저비스베이+스노쿨링 6일 1,090,000 원~

[고품격/팁포함]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3,190,000 원~

미서부+3대캐년+후버댐 8일 1,590,000 원~

예/약/상/담 상무점 062)652-2974 전주점 063)284-6868 광양점 061)792-7222 나주점 061)332-7400 광천점 062)512-1713 충장점 062)251-6166